

## Chapter 15 : 동시성 제어

**Database System Concepts, 6th Ed.** 

©Silberschatz, Korth and Sudarshan See <a href="https://www.db-book.com">www.db-book.com</a> for conditions on re-use



## Chapter 15-2:동시성 제어

- □ 로크 기반 규약
- □ <mark>교착상태 처리</mark>
- □ <mark>타임스탬프 기반 규약</mark>



## 교착 상태 처리

□ 다음 두 트랜잭션을 고려해 보자:

 $T_1$ : write (A)  $T_2$ : write(B) write(A)

□ 교착상태가 있는 스케쥴

$T_1$	$T_2$
lock-X on A write (A)	
	lock-X on B write (B) wait for lock-X on A
wait for <b>lock-X</b> on B	



## 교착 상태 처리(계속)

- □ 집합내의 각 트랜잭션이 집합내의 다른 트랜잭션을 기다리고 있는 트랜잭션의 집합이 있으면, 시스템은 교착상태에 있다.
- □ 교착상태 방지 규약(*Deadlock prevention* protocol)은 시스템이 결코 교착상태에 돌입하지 않도록 보장한다. 몇 가지 기법은 다음과 같다 :
  - 각 트랜잭션이 실행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 항목에 로크를 건다. (사전 선언)
  - 모든 데이터 항목의 부분 순서를 부과하고 트랜잭션은 부분 순서로 지정된 순서로만 데이터 항목에 로크를 걸 수 있도록 한다.(그래프 기반 규약)



### 보다 나은 교착상태 방지 전략

- □ 다음 기법들은 교착 상태 방지만을 위해 트랜잭션 <mark>타임스탬프</mark>를 사용한다.
- □ 대기 복귀 기법(wait-die scheme ) 비선점
  - 오래된 트랜잭션이 최근의 트랜잭션에서 데이터 항목을 해제하기를 기다린다.
     최근의 트랜잭션은 오래된 트랜잭션을 기다리지 않고, 대신 복귀된다.
  - 트랜잭션은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얻기 전에 여러 번 복귀될 수 있다.
- □ 복귀 대기 기법 (wound-wait scheme) 선점
  - 오래된 트랜잭션이 최근의 트랜잭션을 기다리는 대신 강제로 복귀시킨다.
     최근의 트랜잭션은 오래된 트랜잭션을 기다린다.
  - 대기 복귀 기법보다 복귀가 적다.
- □ 대기 복귀와 복귀 대기 기법 모두에서 복귀된 트랜잭션은 원래의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재시작한다. 따라서, <mark>오래된 트랜잭션은 새로운 트랜잭션에 대해</mark> <mark>우선하며 기아를 피하게 된다.</mark>



## 교착 상태 방지(계속)

- □ 타임아웃 기반 기법:
  - 트랜잭션은 정해진 시간만큼만 로크를 기다린다. 그 후에는 타임아웃에 걸려 복귀된다.
  - 따라서 교착상태는 불가능하다.
  - 구현하기가 쉽지만, 기아의 가능성이 있다. 또한 타임아웃의 간격값을 정하기가 어렵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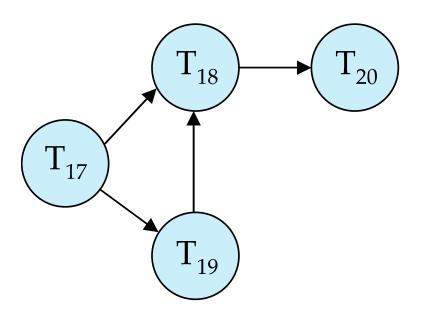


#### 교착 상태 탐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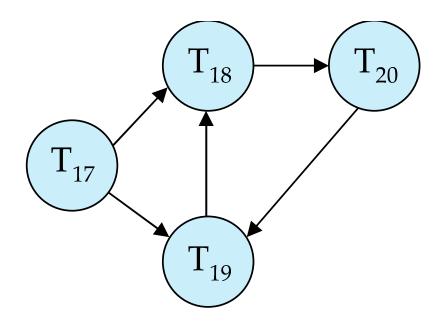
- □ 교착 상태는 G = (V, E)로 구성된 대기 그래프(wait-for graph)로 설명될 수 있다.
  - V 는 정점의 집합이다(시스템내의 모든 트랜잭션).
  - -E 는 간선의 집합으로 각 요소는  $T_i \rightarrow T_i$  형태의 순서 쌍이다.
- □ E내의  $T_i \rightarrow T_j$ 는  $T_j$ 가 데이터 항목을 해제하기를  $T_i$ 가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.
- □  $T_j$ 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항목을  $T_i$ 가 요구하면, 대기 그래프내에 간선  $T_i \rightarrow T_j$ 가 삽입된다. 이 간선은  $T_i$ 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항목을  $T_j$ 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때만 제거된다.
- □ 시스템이 <mark>교착상태</mark>에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대기 그래프에 <mark>순환</mark>을 가질 때이다. 순환이 존재하는지를 탐지하기 위해 교착상태 탐지 알고리즘을 주기적으로 호출해야 한다.



# 교착 상태 탐지(계속)



Wait-for graph without a cycle



Wait-for graph with a cycle



## 교착상태의 회복

- □ 교착상태를 탐지하면 :
  - 교착상태를 깨기 위해 몇 개의 트랜잭션을 복귀시켜야 한다.최소의 비용을 초래할 트랜잭션을 희생자로 선택한다.
  - 복귀 트랜잭션의 어디까지 복귀시킬지를 결정한다.
    - \* 전체 복귀: 트랜잭션을 중단시키고 재시작한다.
    - \* 교착상태를 깨는데 필요한 부분만을 복귀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.
  - 동일한 트랜잭션이 항상 희생자로 선택되면 기아가 발생한다.기아를 피하기 위해 비용 요인 내에 복귀 횟수를 포함시킨다.



#### 타임스탬프 기반 규약

- □ 각 트랜잭션이 시스템에 들어올 때 타임스탬프를 부여한다. 이전 트랜잭션  $T_i$ 가 타임스탬프  $TS(T_i)$ 를 가지고, 새로운 트랜잭션  $T_j$ 에 타임스탬프  $TS(T_i)$  가 할당되면,  $TS(T_i)$  <  $TS(T_i)$ 가 된다.
- □ 이 규약은 타임스탬프가 정렬한 직렬성 순서대로 동시 실행을 관리한다.
- □ 그러한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, 규약은 <mark>각 테이터 항목 Q에 대해</mark> 두 개의 타임스탬프 값을 유지한다 :
  - W-타임스탬프(Q)는 write(Q)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트랜잭션들
     중 가장 큰 타임스탬프이다.
  - R-타임스탬프(Q)는 read(Q)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트랜잭션들
     중 가장 큰 타임스탬프이다.



## 타임스탬프 기반 규약(계속)

- □ 타임스탬프 순서 규약은 <mark>어떤 충돌하는 read와 write 연산이</mark> 타임스탬프 순서로 실행되도록 보장한다.
- □ 트랜잭션 *T;*가 **read**(Q)를 낸다고 가정하자.
  - 1.  $TS(T_i) < W-TS(Q)$ 이면,  $T_i$ 가 이미 덧씌워진 Q의 값을 읽으려 하는 것이므로, **read** 연산은 거절되고  $T_i$ 는 복귀된다.
  - 2. TS(*T<sub>i</sub>*) ≥W-TS(*Q*)이면, **read** 연산은 실행되고 R-TS(*Q*)는 R-TS(*Q*) 와 TS(*T<sub>i</sub>*)중 큰 값으로 설정된다.



## 타임스탬프 기반 규약(계속)

- □ 트랜잭션*T<sub>i</sub>*가 write(Q)를 낸다고 가정하자.
  - 1.  $TS(T_i) < R-TS(Q)$ 이면,  $T_i$ 가 생성하려는 Q의 값은 이전에 다른 트랜잭션에서 처리를 위해 읽어 간 것으로 시스템에서는 결코 생성되지 않으리라고 가정한 것이다. 따라서, write 연산은 거절되고  $T_i$ 는 복귀된다.
  - 2.  $TS(T_i) < W-TS(Q)$ 이면,  $T_i$ 가 쓸데없는 Q의 출력을 시도하는 것이어서 write 연산은 거절되고  $T_i$ 는 복귀된다.
  - 3. 그렇지 않으면, **write** 연산은 실행되고 W-TS(Q)는 <mark>W-TS(Q)와</mark> TS(*T*<sub>i</sub>) 중 큰 값으로 설정된다.



## 규약 사용의 예

타임스탬프 1,2,3,4,5를 가진 트랜잭션들의 여러 데이터 항목에 대한 부분 스케쥴

$T_1$	$T_2$	$T_3$	$T_4$	$T_5$
				read (X)
read (Y)	read (Y)			
read (1)		write (Y)		
		write $(Z)$		
	read (Z)			read (Z)
	abort			
read (X)				
		write (W)	read (W)	
		abort		
				write (Y)
				write (Z)

 $TS(T_1)=1$ ,  $TS(T_2)=2$ ,  $TS(T_3)=3$ ,  $TS(T_4)=4$ ,  $TS(T_5)=5$ 

R-timestamp(X):

W-timestamp(X):

R-timestamp(Y):

W-timestamp(Y):

R-timestamp(Z):

W-timestamp(Z):

R-timestamp(W):

W-timestamp(W):



#### 타임 스템프 규약 하에서 생성될 수 있는 스케쥴

#### 타임스탬프 1,2를 가진 트랜잭션들의 2개 데이터 항목에 대한 스케쥴

T25:

read (B);
read (A);
display(A+B).

T26:

read(B);	
B:=B-50;	
write(B);	
read(A);	
A:=A+50;	
write(A);	
display(A+B)	

스케쥴 3

$T_{25}$	$T_{26}$
read (B)	
	read (B)
	B := B - 50
	write (B)
read $(A)$	
	read (A)
display(A + B)	
	A := A + 50
	write $(A)$
	display $(A + B)$

TS(T<sub>25</sub>)=1 TS(T<sub>26</sub>)=2

R-timestamp(B):

W-timestamp(B):

R-timestamp(A):

W-timestamp(A):



#### 타임스탬프 순서 규약의 정확성

- 타임스탬프 순서 규약은 선행 그래프내의 모든 호가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. 따라서, 선행 그래프 내에 순환이 없을 것이다.
- □ 선행그래프: 충돌 직렬성 검사 방법
- 타임스템프 순서규약은 충돌 직렬성을 보장한다:



- □ 타임스탬프 규약은 트랜잭션이 결코 기다리지 않으므로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.
- 그러나, 스케쥴이 연쇄 복귀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회복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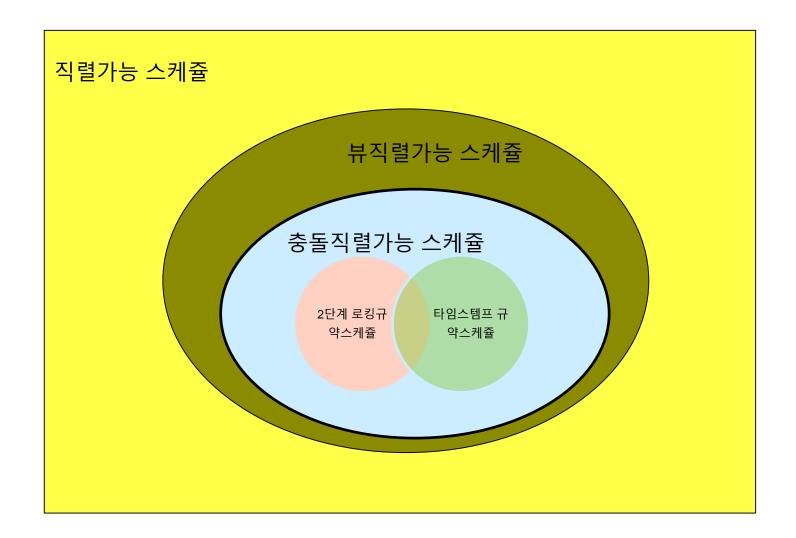
### 회복성과 연쇄 복귀의 회피

- □ 타임스탬프 순서 규약의 문제점:
  - $-T_i$ 는 중단되었지만  $T_j$ 는  $T_i$ 가 이미 쓴 데이터 항목을 읽었다고 가정하자.
  - 그러면  $T_j$ 는 중단되어야 한다;  $T_j$ 가 보다 먼저 완료하면, 스케쥴은 <mark>회복</mark> 불가능이다.
  - 또한, T<sub>i</sub>가 쓴 데이터 항목을 읽은 트랜잭션은 중단되어야 한다.
  - 이것은 연쇄 복귀를 야기할 수 있다.

#### □ 해결책:

- write는 처리의 마지막에서 모두 수행되도록 트랜잭션을 구축한다.
- 트랜잭션의 모든 쓰기는 원자적 행위를 이루도록 한다; 트랜잭션이쓰기를 진행하는 중에는 어떤 트랜잭션도 실행할 수 없다.
- 중단된 트랜잭션은 새로운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재시작한다.







## **End of Chapter**

**Database System Concepts, 6th Ed.** 

©Silberschatz, Korth and Sudarshan See www.db-book.com for conditions on re-use